

13~14세기 元-耽羅 관계 연구 동향 분석

권 용 철*

- I. 머리말
- II. 초기의 연구-연구 분야의 개척
- III. 1980~1990년대의 연구-상세해진 연구의 활성화
- IV. 2000년대~현재의 연구-연구 주제의 다변화와 시각의 확대
- V. 맺음말

국문초록

13~14세기 원과 탐라 관계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초기에는 연구 주제를 개척하는 측면에서 개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한국학계를 중심으로 원-탐라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주도의 자료들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어 탐라 관련 사료집이 간행되었을 정도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이를 통해 원-탐라 관계의 핵심 주제들이 지닌 역사적 의미가 밝혀질 수 있었다.

자료와 연구 주제 방향의 성과를 기반으로 2000년대부터는 원-탐라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원과 탐라의 정치·외교적 관계는 물론이고, 문화와 사회에 끼친 영향에도 주목한 연구가 출간되었고 고고학 성과를 토대로 실제 유적과 기록의 연계를 통한 분석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元代史 및 明代史 연구 성과의 축적과 더불어 원과 명의 정세 및 제도 등을 상세하게 고찰한 바탕에서 탐라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구가 시도되었고, 더 나아가 원·명-고려의 관계에서 탐라 문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위상이 부각되기도 했으며 고려가 결국 탐라를 지

* 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kycgandhi@hanmail.net

배하게 되면서 원-탐라 관계로 인해 형성된 여러 가지 측면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 즉, 연구의 시각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검토의 범주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의 연구자들과 다른 지역 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학술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심화 및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 탐라, 몽골, 대원제국, 원-탐라 관계

I. 머리말

耽羅로 불렸던 제주도의 역사는 한국사 더 나아가 동아시아사의 전개와 형성 과정에서 독특하면서도 커다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의 역사적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주도의 ‘지리적’ 혹은 ‘지정학적’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한반도-중국-일본을 잇는 해양 항로에서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중국, 일본에 자리잡은 여러 왕조들과 다양한 역사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검토는 한국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사의 전개 과정의一端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탐라가 동아시아 역사 전개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된 최초의 시기를 꼽자면, 아마도 13~14세기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13~14세기는 몽골제국의 출현과 확대로 인해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라시아 세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고, 탐라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고려가 몽골제국에 복속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세조 쿠빌라이(忽必烈, Qubilai)는 일본과 남송 정벌에 뜻을 두고 이에 탐라의 지정학적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것이 계기가 되면서 탐라는 몽골제국의 ‘시

야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로 인해 탐라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고, 강화도와 진도를 거치며 몽골-고려에 저항했던 삼별초 세력이 탐라로 이동하면서 이에 대한 진압을 위해 몽골제국과 고려가 탐라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삼별초 세력이 평정된 후, 탐라는 大元제국의 직할령이 되었다가 고려에 還屬되지만 원 제국은 탐라에 대해 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탐라를 諸王이나 귀족들의 유배지로 활용했던 것, 탐라를 牧馬場으로 적극 이용했던 것, 惠宗 토곤테무르(妥懽帖睦爾, Toyon-Temür)가 피난을 위해 탐라에 궁전을 건설했던 사실 등은 그러한 관심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368년에 원 제국 황실이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明太祖 주원장이 大都를 점령하면서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질서는 새롭게 편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 제국은 북쪽으로 물러난 것이었을 뿐, 1368년에는 결코 멸망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제국을 추종하는 잔여 세력을 처리하는 과제는 신흥국가 明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었고, 고려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추이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고려 恭愍王은 곧바로 明과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고, 이는 원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동을 위해서는 원 제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세력들을 제압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는 탐라의 牧胡들이 일으킨 반란에 직면했다. 탐라에서 원 제국에 조달할 말을 키우는 임무를 맡았던 목호들은 고려가 급격하게 明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성되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탐라는 1368년 이후 동아시아의 정국에서 생겨난 변화의 형태와 양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탐라는 13세기에 원 제국의 직할령으로 편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당시 동아시아 역사 전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고려에 還屬된 이후에도 원 제국의 영향력은 탐라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1368년에 원 제국이 북쪽 초원으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원 제국 중심의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던 탐라의 목호들이 고려에 도전장을 던진 것은 원-탐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13~14세기 원-고려-탐라의 역사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드러내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한 측면을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그 설명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과 현상들을 상세하게 다루는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어 원-탐라 관계 이해의 심화를 도모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원-탐라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정리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13~14세기 제주도의 역사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그만 기반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Ⅱ. 초기의 연구-연구 분야의 개척

원과 탐라의 관계에 주목한 가장 이른 연구로는 池內宏의 논문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일본, 남송 정벌을 위해 탐라가 그 요충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을 쿠빌라이가 주목했고, 이에 1269년(至元 6)에 탐라 주변의 도로를 시찰하려는 목적으로 脫脫兒, 王國昌, 劉傑을 파견했다는 것을 기록한 『元高麗紀事』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보다 1년 전인 1268년(至元 5)에 이미 똑같은 3명이 파견되었고, 이때 보내는 조서에 “탐라가 이미 배를 만드는 역에 참여하였으면 거둬 번거로이 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참여하지 않았으면 따로 100척을 만들게 하라.”¹⁾는 기록을 통해 쿠빌라이의 탐라에 대한 관심이 일찍부터 보였음을 확인했다. 한편, 至元 5년에 파견된 사절단에 대한 내용은 『高麗史』에도 있는데 至元 6년의 사절에 관해서는 『高麗史』에서 언급하지 않았음을 주목한 池內宏은 脫脫兒가 고려에 오던 도중 고려의 서북 지역을 몽골

1) 『元高麗紀事』의 번역은 여원관계사연구팀 편, 『譯註 元高麗紀事』, 선인, 2008, 153쪽 참고

에 바치면서 귀부한 崔坦을 만나 이를 쿠빌라이에게 보고하기 위해 몽골로 돌아갔기 때문에 『高麗史』에 그의 도착을 언급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²⁾ 이는 몽골-탐라의 관계를 다룬 최초의 근대적 연구라고 할 수 있고, 『元高麗紀事』가 가진 사료적 가치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탐라가 원 제국의 직할령이 되는 등 본격적으로 통제를 받기 시작한 시기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았고, 이는 훗날의 연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밝혀진다.

池内宏의 연구가 원 제국 초기 탐라와의 관계에 주목한 성과라고 한다면, 원 제국 말기 탐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다룬 것으로는 岡田英弘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그는 1366년(至正 26)에 간행된 『耽羅志略』이라고 하는 책의 존재에 주목하고,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원 제국과 탐라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했다. 특히 원 제국의 惠宗 황제가 탐라로 사신을 파견했던 것은 피난 궁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耽羅志略』의 완성은 혜종이 탐라로 파견한 사신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서술했다.³⁾ 이 연구를 통해 원 제국은 북쪽으로 쫓겨나기 직전까지도 탐라를 매우 각별하게 생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현재 완전한 형태로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원 측의 관료가 바라본 탐라의 모습을 기록한 『耽羅志略』의 後序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196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두 일본학자의 연구를 통해 원 제국 세조와 혜종 두 황제가 서로 다른 이유로 탐라를 주목했음이 밝혀졌고, 원-탐라 관계를 밝히는 커다란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구미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몽골제국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

2) 池内宏, 「元の世祖と耽羅島」, 『東洋學報』 16-1, 1926.

3) 岡田英弘, 「元の順帝と濟州島」, 『アジア文化研究』 1, 1958. 필자는 岡田英弘,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東京: 藤原書店, 2010, 165-182쪽에 재수록된 논문을 참고했다.

4) 「耽羅志略後序」는 원말명초 문인 貝瓊의 문집인 『雲間集』에 수록되어 있는데, 貝瓊이 남긴 글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李鳴 校點, 『貝瓊集』,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10, 43쪽에 「耽羅志略後序」가 실려 있다.

지만, 13~14세기 고려나 탐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원-탐라 관계사 분야에서는 언급될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Henry Serruys가 1959년에 출간한 단행본의 일부 내용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원이 북쪽 초원으로 물러난 이후 명과 몽골의 관계를 주로 연구한 Henry Serruys는 자신의 연구에 부록으로 몽골과 탐라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서술했는데, 여기에서는 명태조가 원의 잔여 세력을 제압한 이후에 원의 황실 諸王들을 주로 탐라로 유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Serruys는 원대에 목마장이 탐라에 설치되는 등의 이유로 몽골인들이 탐라에 거주했고, 몽골 諸王들을 탐라로 귀양을 보낸 것도 이러한 배경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고 보았던 것이다.⁵⁾ 원이 1368년에 초원으로 물러났지만, 원-탐라 관계의 여파는 이후 명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인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점이 소략하나마 드러나고 있다.

한편 일본학계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에서도 1960년대에 원-탐라 관계에 주목한 논문이 간행되었다. 물론, 1960년대 이전에 삼별초에 관한 金庠基의 연구⁶⁾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은 원-탐라 관계사를 전반적으로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삼별초보다는 삼별초가 진압된 이후 탐라에 대한 원과 고려의 통치 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

5) Henry Serruys,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Bruxelles: L'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1959, pp.294-299.

6) 金庠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一)」, 『震檀學報』 9, 1938;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二)」, 『震檀學報』 10, 1939;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完)」, 『震檀學報』 13, 1941. 삼별초 역시 원-탐라 관계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삼별초 연구는 원-탐라 관계사에 속한다기보다는 별도의 또 다른 연구 주제로 설정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삼별초와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검토는 제외했다. 삼별초와 관련된 성과로는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과 윤용혁, 『삼별초』, 혜안, 2014를 참고할 수 있고, 『삼별초』에 대한 논평으로는 문경호, 「삼별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변론」, 『韓國史學報』 59, 2015 참고 최근 제주도 삼별초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로는 윤용혁, 「제주 삼별초와 몽골·동아시아 세계」, 『耽羅文化』 52, 2016을 참고할 수 있다.

욱 진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학계의 원-탐라 관계사 방면에 관한 논의를 형성한 최초의 연구자는 金泰能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능은 원 제국의 탐라 지배 형태와 탐라가 고려로 환속된 이후에도 남아 있었던 원 제국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언급했고, 14세기 후반 목호의 반란과 최영의 정벌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도 설명하면서 13~14세기의 원-고려-탐라의 관계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⁷⁾ 또한, 원 제국 해종이 탐라에 지으려고 했던 피난궁전을 언급하면서 法華寺 경내에서 발견된 遺址가 바로 이 궁전의 터였을 것임을 주장했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김태능은 피난궁전 터 이외에도 그 부근에 王子墓로 전해지고 있는 유적은 원이 북쪽으로 물러난 후 雲南에서 끝까지 명에 저항하던 梁王의 아들 伯伯太子의 묘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⁸⁾ 그리고 원이 명에 의해 북쪽으로 쫓겨난 이후, 梁王의 후예들과 몽골의 親王들이 탐라에 유배되어 오면서 몽골 문화가 탐라에 계속 전파되었던 배경을 다룬 연구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이를 통해 김태능은 이후 13~14세기 원·명-탐라 관계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대부분의 주제들을 검토했고,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 문헌학은 물론이고 고고학 분야에서도 활발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었다.

김태능에 이어 원-탐라 관계를 다룬 초기 연구자로는 양상익이 있다. 양상익은 몽골의 침입 이전 탐라의 모습을 소개하고, 몽골의 고려 침입과 삼별초의 저항 등으로 인해 몽골이 탐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언급했다. 그리고 쿠빌라이가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아 직접 통치를 시작한 이후 공민왕 시기에 목호의 난이 진압되기까지 약 100년

7) 金泰能, 「蒙古의 耽羅支配와 崔瑩將軍의 牧胡討伐」, 『濟州新報』 12, 1959; 「耽羅와 元의 牧養時代」, 『제주도』 18, 1964; 「耽羅와 元의 牧養時代(完)」, 『제주도』 19, 1965. 이 중에서 1959년에 발표된 글은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236-267쪽에 재수록된 논문을 참고했다.

8) 金泰能, 「元順帝의 避難宮殿址와 伯伯太子의 墓」, 『제주도』 31, 1967.

9) 金泰能, 「明의 興起와 濟州와의 關係」, 『濟州新聞』 7, 1964. 필자는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297-309쪽에 재수록된 논문을 참고했다.

에 걸친 탐라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서술했다. 이 시기에 탐라의 백성들은 원으로의 물자 징발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지만, 언어와 풍속 측면에서의 영향과 목축방법의 도입, 불교의 발전, 혼혈관계의 형성 등 탐라 사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도 밝혔다.¹⁰⁾ 양상익의 이 연구는 영어로 서술되어 있었던 탓에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활용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영어권 연구자들은 이 논문의 존재 자체를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양상익의 논문은 1970년대에 이미 13~14세기 원-탐라 관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명하고, 그것이 탐라 역사의 전개에 미친 영향까지 지적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원-탐라 관계를 다룬 초기의 연구를 통해 이 분야의 개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료들이 발굴되기 시작했고, 그 사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13~14세기 원-탐라 관계의 전반적인 흐름이 개략적인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서 원 제국의 세조와 혜종 황제가 탐라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삼별초의 진압 이후 탐라가 원 제국의 직할령이 되었다가 고려로 환속되었지만 여전히 원 제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도 조명되었다. 그래서 13~14세기 탐라 역사 연구를 위해서는 원 제국과 고려의 탐라 통치 방식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들 이후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원-탐라 관계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원-고려 관계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들을 집중적으로 논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연구 속에서 원-탐라 관계는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원-고려 관계 연구의 진전을 배경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탐라 관계사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살펴 보도록 하자.

10) Sang Ick, Yang(양상익), "The Foreign Influence on the Traditional Culture of Cheju Island", 『제주대학교 논문집』 5, 1973.

Ⅲ. 1980~1990년대의 연구-상세해진 연구의 활성화

원-탐라 관계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일본학계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연구의 활성화는 한국학계가 주도하였다. 원-고려 관계를 밝히는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 발굴된 각종 사료들과 다양한 논의들이 학문적 성과로 축적되면서 특히 高麗史 연구자들 나아가 제주도 연구자들의 인식이 확대되어 13~14세기 탐라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연구의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탐라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고려의 자료는 물론이고, 제주도 고유의 기록과 원 제국 측의 사료까지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이 생기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논문들을 발표한 연구자가 바로 高昌錫이다.

1980년대의 원-탐라 관계 연구는 고창석에 의해 다시 이루어졌는데, 그는 198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초기의 연구들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매우 치밀한 고증을 시도했다.¹¹⁾ 우선, 삼별초가 진압되기 이전 시기 탐라와 몽골 측이 접촉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1267년(至元 4)에 百濟가 來朝했다는 『元史』의 기록을 주목하고 여기에 나온 百濟가 바로 탐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탐라와 몽골의 최초 접촉 시기를 至元 4년으로 설정했다.¹²⁾ 그리고 초기의 연구에서 池內宏이 언급한 至元 5년과 6년의 사절 파견을 더욱 상세하게 검토하면서 池內宏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내놓았다. 두 번째로는 삼별초가 진압된 이후 원 제국의 탐라 지배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招討司 →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 軍民安撫司 → 總管府 → 軍民萬戶府가 차례대로 탐라에 설치된 구체적인 시기,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11) 高昌錫, 「麗·元和 耽羅와의 關係」, 『제주대학교 논문집』 17, 1984.

12) 사실, 至元 4년에 나온 百濟가 탐라였다고 하는 주장은 이미 岡田英弘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위의 논문에서 岡田英弘의 연구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고창석은 岡田英弘의 연구를 참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元史』를 검토하고 새로운 의미를 도출시켰던 것이다.

서 논의하였다. 고창석의 이 논문을 통해 원-탐라의 접촉과 원이 탐라에 설치한 官府에 대한 사료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그 의미가 밝혀지면서 이후의 연구 발전을 향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었다.

물론, 고창석이 1984년에 발표한 논문이 원-탐라 관계의 모든 측면을 다룬 것은 아니다. 원이 탐라에 설치한 목마장, 유배지로서의 탐라, 혜종의 피난 궁전 조성, 탐라에서 일어난 목호의 반란 등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여전히 상세하게 검토되지는 못한 것이다. 이에 고창석은 후속 연구에서 목호의 반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목호의 반란은 원 제국의 힘이 점점 약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변해가는 국제관계의 흐름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려-탐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목호의 반란은 원이 북쪽으로 물러나고 명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던 고려의 입장에서는 貢馬 문제¹³⁾가 얽혀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1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였다. 즉, 목호의 반란 문제는 원·명-탐라-고려 사이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졌던 외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태능 역시 이 사건을 언급했지만, 보다 자세한 검토는 고창석의 연구를 통해 시도되었다.

고창석은 목호의 반란이 고려 1356년(공민왕 5·원 至正 16)에 시작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최초의 목호 반란은 당시 공민왕의 排元政策¹⁴⁾과

13) 고려의 명에 대한 貢馬 문제는 당시 고려와 명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 주된 요인이었던 탓에 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다.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는 林常薰, 「明初 洪武帝의 말 強要와 麗明關係」, 『中國史研究』 99, 2015를 참고할 수 있다. 林常薰은 명의 고려에 대한 최초의 공마 요구는 군마 충당을 위한 현실적인 요구였는데, 고려-명 관계가 악화된 이후가 되어서야 공마를 고려에 대한 강압책으로 명이 활용했던 것임을 밝혔다.

14) 주로 ‘反元政策’이라고 불리고 있는 공민왕의 정치 노선과 이에 관한 논쟁으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閔賢九, 「高麗 恭愍王의 反元的 改革政治에 대한 一考察-背景과 發端」, 『震檀學報』 68, 1989;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 2007; 李康漢, 「공민왕 5년(1356) ‘反元改革’의 재검토」, 『大東文化研究』 65, 2009; 崔鐘奭, 「1356(공민왕 5)~1369(공민왕 18) 고려-몽골(원) 관계의 성격-‘원간섭기’와의 연속성을

이의 연장인 쌍성총관부 수복 등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민왕 5년에 공민왕이 기철 세력을 숙청한 것을 시작으로 정동행성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연호 사용을 중지하는 등 원의 질서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탐라의 목호들이 이에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탐라 목호의 반란이 고려-탐라 관계를 넘어서 원-고려-탐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균열로 인해 초래되었음이 밝혀질 수 있었다. 또한, 1362년(공민왕 11·원 至正 22)에 발생했던 목호의 반란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고려가 혼란에 빠지고, 여기에 더하여 원의 기항후가 공민왕을 폐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게 되자 이에 호응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도 조명되었다. 그리고 원이 1368년 몽골 초원으로 물러난 이후에 탐라의 馬匹을 명에 바치려 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목호의 반란이 다시 일어났을 때, 목호들은 자신들의 말은 원에 바쳐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여전히 원 중심의 국제질서를 옹호했고 결국 이로 인해 고려의 탐라 목호에 대한 대대적인 정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세밀하게 서술했다.¹⁵⁾ 즉, 목호의 반란은 14세기 후반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이 원에서 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갈등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는 탐라가 국제질서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던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원-탐라 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주제는 바로 탐라에 설치된 원의 牧馬場이다. 원이 유독 탐라에 애착을 가졌던 이유는 탐라가 중국-고려-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항로에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중심으로, 『歷史教育』 116, 2010; 이명미, 「공민왕대 초반 군주권 재구축 시도와 奇氏一家: 1356년(공민왕 5)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3, 2011; 이익주, 「1356년 공민왕 反元政治 再論」, 『歷史學報』 225, 2015; 최윤정, 「1356년 공민왕의 ‘反元改革’ 재론」, 『大丘史學』 130, 2018.

15) 高昌錫, 「元·明交替期の 濟州島-牧胡亂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4, 1985. 이 논문에서 활용된 사료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교문서의 일부를 수록한 『吏文』이다. 현재는 『吏文』의 한글 역주본이 출간되어 있어 외교문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탐라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범진 역주, 『이문 역주(상)』, 세창출판사, 2012, 120-158쪽의 내용을 참고.

수 있다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또 중요한 점은 탐라가 말을 사육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명태조 주원장이 몽골인들은 탐라를 ‘樂土’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 언급¹⁶⁾도 탐라에 운영되었던 목마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던 탐라의 목호들도 목마장의 경영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만큼 탐라 목마장의 설치는 원이 탐라에 두었던 공식 官府들만큼 중요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창석과 陳祝三이 1980년대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⁷⁾

고창석은 1276년(충렬왕 2)에 몽골의 말 160필이 탐라에 들어와 방목되었던 것을 언급하고, 목마장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다고 기록된 阿慕 哈赤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아막은 목장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설치한 監牧官과 鎭撫 등이 주재하는 일종의 牧舍였던 것으로 정의했고, 합적은 몽골에서 黑馬乳를 생산하는 牧人을 지칭하는 카라치(哈刺赤, Qarači)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탐라의 목마장에서 원으로 보내진 말의 숫자가 확실히 전해지지 않고, 원에 진헌된 빈도 역시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수의 마필이 원으로 바쳐진 것 같지는 않다고 보면서 오히려 원이 물러난 이후 명에 대한 貢馬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었다고 서술하였다.¹⁸⁾

대만의 연구자인 陳祝三은 원이 탐라로 들어오기 이전 탐라에서는 말이 사육되기는 하였지만, 대규모로 방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원이 목마장을 설치한 이후부터 養馬의 기법이 발전했다고 보았다.

16) 『明太祖實錄』 卷75, 洪武 5年 7月 庚午.

17) 탐라의 목마장을 상세하게 다룬 선구적인 연구로는 南都詠, 「朝鮮時代 濟州島 牧場—韓國牧畜業 研究의 一端」, 『韓國史研究』 4, 1969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탐라의 관계 측면을 많이 다루지 않았다. 이후 남도영은 제주도 목장에 관한 단행본을 내면서 원의 목장 건설과 목호의 반란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상세한 서술을 남겼다(南都詠, 『濟州島 牧場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154-184쪽) 참고.

18) 高昌錫, 「元代の 濟州島 牧場」, 『濟州史學』 창간호, 1985. 고창석의 연구들은 그의 논문을 모은 단행본인 高昌錫, 『濟州歷史研究』, 세림, 200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목마장을 운영하는 목호는 몽골인들로, 목마장에 고려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기술로 말을 사육하면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양마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몽골인 목호들의 기술이 목호 토벌로 인해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탐라 말 품종의 질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¹⁹⁾ 탐라 목마장의 설치와 그 운영은 탐라에서 몽골-원의 유목 문화가 목호들에 의해 보존되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의 탐라 지배와 경영을 다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부분적인 내용으로 삼아 원과 고려의 관계를 ‘영토 분쟁’의 측면에서 서술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金九鎭은 고려의 영역에 원이 새로 설치한 東寧府, 雙城總管府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더해 탐라총관부가 설치되어 원이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던 과정을 다루었다.²⁰⁾ 물론, 김구진의 연구에 원-탐라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와 큰 차별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탐라총관부의 등장을 동녕부, 쌍성총관부 설치와 비교하면서 원이 고려의 영토 중 일부를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았던 사례들을 분석한 것은 원-탐라 관계를 통해 원-고려 관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13~14세기는 물론이고 전 시기에 걸친 ‘제주사’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원-탐라 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고창석의 연구 성과가 주목된다. 고창석은 원-탐라 관계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욱 시기적 범주를 넓혀 제주사를 고찰했고, 그 성과 중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탐라국사료집』이다.²¹⁾ 한국, 중국, 일본의 여러 사료들에서 탐라와 관련된 기사들을 수록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이

19) 陳祝三, 「蒙元和 濟州馬」, 『耽羅文化』 8, 1989.

20) 金九鎭, 「麗·元の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雙城總管府·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 1989.

21) 高昌錫 編著, 『耽羅國史料集』, 新亞文化社, 1995.

훨씬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탐라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료 정리 작업을 기반으로 고창석은 『元高麗紀事』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13세기 원-탐라 관계의 성격을 정리하며 기존 연구 성과의 내용을 보완하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²²⁾

1980~1990년대에 한국학계에서 원-탐라 관계에 대한 논의가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후 연구의 든실한 주춧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비로소 원-탐라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가 출현했다. 한국학계의 원-탐라 관계사에 대한 관점은 탐라가 원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중국학계의 연구는 원이 탐라를 어떻게 예속시켰는지를 주목했다. 하지만 중국학계는 탐라보다는 현재의 '제주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고, 이로 인해 원-탐라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阿達의 성과²³⁾를 그나마 언급할 수 있는 정도이다. 게다가 1990년대의 중국학계에서는 아직 원-고려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탓에 원-탐라 관계사는 더더욱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중국학계의 원-탐라 관계 연구가 부진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阿達의 논문을 살펴보면, 阿達이 원-탐라 관계사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재구성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阿達은 원과 탐라의 접촉 및 삼별초 함락, 원이 탐라에 설치한 官府와 목마장, 탐라에 머물렀던 원의 군대, 원에 바쳤던 賦役으로 항목을 나누어 각각의 내용을 『元史』, 『高麗史』, 『元高麗紀事』 등의 사료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서술했다. 특히 원 세조 이후 목호 반란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시기인 14세기 전반의 원-탐라 관계에도 주목하여 1318년(延祐 5)에 탐라에서 발생한 金成의 반란과 원의 魏王 阿木哥가 탐라로 귀양을 왔다가 대청도로 옮겨간 사실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혜종 즉위년(1333)에는 耽羅國 軍民安撫司가 다시 설치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기록도 발굴했다. 이외

22) 高昌錫, 「『元高麗紀事』 耽羅關係 記事의 檢討-13세기 耽羅와 元과의 關係」, 『慶北史學』 21, 1998.

23) 阿達, 「耽羅隸元考述」, 『中國邊疆史地研究』 1997-1.

에도 『元史』와 『高麗史』에 탐라가 언급된 매우 단편적인 기사들도 일부 소개하며 원이 군사적, 경제적 방면에서도 탐라를 활용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원이 탐라를 어떻게 지배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었고, 원-고려 관계에서 보이는 ‘自主’와 ‘服屬’의 이중성보다 원-탐라 관계에서는 비록 탐라가 고려에 還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호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원에 ‘예속’되었던 경향이 강했다는 논의가 부각되었다.

원-탐라 관계의 초기 연구를 주도했던 일본학계에서는 岡田英弘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1999년에 大葉昇一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원 대사 연구자인 大葉昇一은 원의 탐라 진출과 이로 인한 고려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원-탐라 관계를 언급했다. 원과 탐라의 초기 접촉과 관련해서는 원의 일본원정에 강조점을 두면서 탐라를 군사기지이자 선박제조장으로서 활용했음을 언급했고, 일본원정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도 원의 官府가 탐라에 계속 유지되다가 고려에 탐라를 반환한 것은 쿠빌라이의 사망 이후 일본원정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표명한 成宗의 결정이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고려에 반환된 이후에도 원의 탐라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되었고, 이는 탐라에서 고려-원으로 바쳐진 方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탐라에서 일어난 반란을 고찰하면서 탐라의 토착 지배층은 고려보다는 원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하며 고려가 완전히 탐라를 복속시킬 때까지 원, 고려, 탐라의 토착 領袖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했음을 밝혔다.²⁴⁾

1980~1990년대에 이루어진 원-탐라 관계사 연구는 초기 단계의 연구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원이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았던 배경을 다양한 시선에서 언급했고, 원이 탐라에 설치했던 官府의 역할과 변화의 추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원의 의도를 도출했다. 그리고 원 중심의 세계질서가 무너지면서 생긴 정치적 변동에 저항하며 일어난

24) 大葉昇一, 「元・明初の耽羅(濟州島)」, 『昭和女子大學文化史研究』 3, 1999. 大葉昇一은 한국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고창석과 陳祝三의 성과를 반영하며 기존 연구를 충실히 섭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목호의 반란과 이를 중심으로 벌어진 원·명-고려-탐라의 관계가 상세하게 조명되면서 탐라가 1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논문의 수가 아주 적고 탐라의 원에 대한 ‘예속’에 시선이 집중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학계와 일본학계에서도 원-탐라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것은 13~14세기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라보는 데 탐라가 일정한 위상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IV. 2000년대~현재의 연구-연구 주제의 다변화와 시각의 확대

이렇게 한국학계를 중심으로 원-탐라 관계사에 대한 연구의 토대가 튼실하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부터는 탐라가 13~14세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제 원-탐라 관계사를 넘어 13~14세기 ‘탐라사’ 서술로 그 방향성이 이동·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원-탐라 관계사에서 부각된 여러 주제들이 더욱 세분화되면서 기존의 성과에서는 잘 부각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들까지 조명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2000년대부터 몽골제국사 및 원대사 연구가 양과 질의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몽골의 세계지배 방식에 대한 활발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원의 탐라에 대한 인식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었다.

2000년대 원-탐라 관계사 연구의 발전을 주도했던 성과는 金日宇의 단행본이었다. 2000년 이전까지 이루어진 고려시대사, 원-탐라 관계사 연구들이 밝혔던 다양한 논의들이 종합되어 고려시대 전체를 시간적 범위로 삼아 탐라의 역사를 검토했던 것이다. 특히 삼별초 진압 이후 탐라의 역사를 ‘원 직할령 시기’, ‘고려와 원 이중귀속기’, ‘목호와 고려의 충돌기’, ‘목호의 최후와 고려 재귀속기’로 시기를 나누어 각 시기가

지닌 특징을 서술하였다.²⁵⁾ 김일우의 연구를 통해 탐라가 결과적으로 고려에 어떤 과정을 거쳐 예속되기에 이르렀는지가 파악될 수 있었고,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또 하나의 기반으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일우는 고려시대 탐라 역사를 다룬 단행본을 출간한 이후, 원-탐라 관계의 여러 측면들을 고찰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그 중에서 제주 法華寺의 重創과 그 위상을 밝힌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화사는 고려 왕실의 주도로 1269년(원종 10)부터 중창되기 시작했는데, 삼별초 진압 이후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은 원이 1273년(원종 14)부터 법화사 중창을 이끌었다. 김일우는 원의 주도로 중창된 법화사가 원 황실의 願刹이면서 탐라에 거주했던 몽골족들의 종교적 안식처였고, 이를 매개로 몽골족의 탐라 지배를 뒷받침하는 官衙의 기능까지 수행했을 것이라고 보았다.²⁶⁾ 원은 탐라에 황실 願刹까지 지었을 정도로 탐라의 지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탐라에 설치된 원의 공식 官府를 주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비공식적’ 지배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법화사를 조명하고 원 혜종의 피난 궁전이 법화사 경내에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원의 지배로 인해 탐라에서는 새로운 官府와 목마장의 설치 이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法華寺의 重創도 그 중 한 모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몽골인들이 탐라로 이주하여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탐라의 토착민들과 혼인을 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미 法華寺라는 사원의 존재를 통해 탐라에 몽골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과 이후 명에 의해 탐라로 유배된 몽골 諸王이나

25) 金日宇,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2000.

26) 金日宇, 「고려후기 濟州 法華寺의 重創과 그 位相」, 『韓國史研究』 119, 2002. 법화사가 창건되고 廢寺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면서 원의 역할을 다룬 연구로는 金東榘,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耽羅文化』 20, 1999를 참고할 수 있다.

귀족들의 존재도 몽골인-탐라인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바탕으로 탐라 사회 자체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역시 김일우의 논문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김일우는 목마장, 혼인, 행정단위의 개편, 법화사, 제주 목호 등으로 항목을 구별하여 제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몽골-원이 다방면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검토했던 것이다.²⁷⁾ 이후의 연구들은 이렇게 설정된 주제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탐라에 설치된 목마장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관련 연구들이 확인된다. 김일우는 원의 탐라 지배로 인해 탐라에서 말, 소 등의 사육이 시작되었다는 인식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13세기 이전에도 탐라의 우마사육이 성행했음을 밝혔고, 원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사육 규모가 확대되었던 것이며 이 시기의 사육 규모와 경험이 탐라민에게 계속 전수되어 제주도가 말의 고장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고 언급했다.²⁸⁾ 이는 목호가 토벌되면서 원의 영향력이 사라진 이후, 조선에서는 사육 기술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탐라 말 품종의 질이 떨어졌다고 서술한 陳祝三과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영준은 원의 목마장 설치로 인해 탐라에 원의 목축문화가 전파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했다. 목축업에서 사용되는 몽골 용어가 탐라로 흘러들어왔고, 말을 다루는 기술 등도 전수되기에 이르렀으며 주로 해안가에 분포하던 촌락이 목축업을 위해 중산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도 검토되었다.²⁹⁾ 그리고 강만익은 탐라목장의 존재시기를 설치기-성장기-쇠퇴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모습들을 밝히고, 목마장이 존재했던 지역들까지 상세하게 검토하며 목축문화가 제주도의 어디로 전파되었는지를 살폈으며 조선 초기에 설치된 국영목장 등은 원이

27) 김일우, 「고려후기 濟州·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韓國史學報』 15, 2003.

28) 金日宇, 「고려시대 耽羅 지역의 牛馬飼育」, 『사학연구』 78, 2005.

29) 전영준, 「13~14세기 元 목축문화의 유입에 따른 제주사회 변화」, 『濟州島研究』 40, 2013.

운영했던 목마장을 계승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³⁰⁾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원의 목마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로 검토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 이외에 인구의 유입, 촌락의 발전, 언어와 기술의 도입, 목마장의 지리적 위치 등 사회·문화적 요소들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었다. 그만큼 원의 목마장 설치는 여러 방면에서 탐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는 13~14세기는 물론이고 이후 제주사의 전개에도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2000년대의 원-탐라 관계사 연구를 통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인구의 유입이다. 삼별초 진압 이후에 원의 탐라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몽골인들이 탐라로 건너와 정착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문화의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탐라의 몽골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탐라 서남부를 중심으로 집단 거주구역이 형성되었고, 혼인을 통해 탐라 토착민과 혈연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제주도민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에도 기여했다. ‘大元’이라는 본관을 가진 몽골인의 후손들이 조선 후기까지도 남아 있었다는 사실³¹⁾은 13~14세기 원의 탐라 경영이 인구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발적으로’ 탐라로 이동한 몽골인들 이외에 주로 유배, 귀양을 탐라로 오게 된 몽골 諸王, 귀족 등의 인사들도 주목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이들의 행적을 통해 당시 원 혹은 고려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들 중에서 일부는 그 후손들이 탐라에 거주하면서 탐라의 문화 형성에 기여했던 것이다.

원나라 사람들의 탐라 이주와 이들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는 裴淑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중국사 연구자인 배숙희는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은 『元史』 이외의 중국 자료들을 이용하면서 원의 官府 제도에 대해 먼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탐라에

30) 강만익,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耽羅文化』 52, 2016.

31) 이에 대해서는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2010을 참고.

설치된 官府의 성격과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원의 탐라 지배가 시작된 이후로 탐라로 온 중국인들을 관원, 주둔군, 목인, 유배인의 범주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서술했으며, 조선 측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도가 한반도와 다른 풍속을 가지고 있었던 원인 중에서 원의 지배를 언급한 내용을 제시하여 원이 탐라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배속희는 탐라보다는 주로 원의 시각에서 탐라 지배를 다루었고, 원대의 통치자들이 탐라를 중국 서남지역의 雲南과 비슷한 변원 지역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³²⁾

원나라 사람들의 유입을 다룬 이후, 배속희는 중국의 운남 지역과 탐라와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원이 명에 밀려 북쪽 초원으로 물러난 이후, 명태조 주원장은 끝까지 저항하던 운남 지역의 몽골 세력을 정벌하고 그 지역을 통할하던 梁王의 후예들을 탐라로 보내면서 운남과 탐라가 연결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명태조는 ‘北元’을 복속시키면서 포로로 잡은 몽골 諸王과 귀족들 역시 탐라로 보내어 살게 하였다. 이로 인해 원의 탐라 지배로 인한 인구 유입에 이어 明初에도 몽골인들이 대규모로 탐라에 이주하게 되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했던 지역은 법화사를 거점으로 한 제주도 서남부 일대였고, 그 인근에서 발견되는 유적지도 몽골인의 집단 거주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³³⁾ 이 논문을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쳤던 梁王 후손들의 탐라 이주가 이루어졌던 시대적 배경이 상세하게 밝혀질 수 있었고, 그 이주로 인해 탐라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³⁴⁾

원 제국 사람들의 유입으로 이루어진 탐라 사회의 변동에 대해서는 ‘혼안’에 방점을 두어 이를 살핀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 원은 고려에

32) 裴淑姬, 「元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中國史研究』 76, 2012.

33) 裴淑姬, 「元末·明初의 雲南과 故元 後裔의 濟州 移住」, 『東洋史學研究』 119, 2012.

34) 운남 梁王 후예들의 탐라 유배와 관련해서는 T. 테무르의 논문도 이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T. 테무르, 「명초(明初) 유배지로서 탐라-운남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48, 2017.

대한 정책 중의 하나로 고려 왕실과의 혼인을 실시했는데, 이로 인해 원-고려 관계가 지속되었던 시기에 원 황실과 고려 왕실 사이의 혈연적 관계가 혼인을 통해 유지되었다. 양국 사이의 通婚으로 인해 인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고, 이로 인해 상호간의 문화적 영향도 상당했다는 점은 원과 탐라와의 교류 측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이 전영준의 논문인데, 그는 탐라로 이주한 몽골인들이 탐라에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도 통혼이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려의 통혼처럼 정략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혼을 통해서 탐라의 몽골 후예들이 결속력을 도모하면서 탐라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³⁵⁾

원의 지배로 인한 탐라의 영향을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는 이종수의 연구들을 언급할 수 있다. 이종수는 원이 탐라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영향을 기존 연구들의 서술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탐라의 언어, 풍속, 음식 등에 몽골 문화가 전파되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³⁶⁾ 이후에도 이종수의 논문들에는 원의 탐라 지배 체제를 다룬 이후에 그것이 끼친 문화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는 서술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원이 고려에 강요했던 六事에 틀을 맞추어 원의 탐라 지배를 분석하기도 했고,³⁷⁾ 탐라 다루가치를 중심으로 그 문화적 영향을 검토하기도 했다.³⁸⁾ 그리고 음식 문화 자체에 초점을 두어 원의 음식이 탐라에 전파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발표했다.³⁹⁾ 이러한 이종수의 연구들은 원-탐라 관계사에서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한 풍속, 음식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그 이외에 원의 탐라 지배 구

35) 전영준, 「고려 후기 제주 移居 元이주민과 通婚」, 『다문화콘텐츠연구』 15, 2013.

36) 이종수, 「대원제국의 탐라지배와 문화적 영향」, 『人文科學研究』 21, 2013.

37) 이종수, 「몽골제국의 탐라총관부 구조, 기능분석」,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8-1, 2014.

38) 이병렬·이종수, 「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4, 2014.

39) 이종수, 「13세기 탐라와 원제국의 음식문화 변동 분석」, 『아세아연구』 59-1, 2016.

조 등과 같은 역사적 주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사실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이 여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측면이 보이고 있어 연구의 진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은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발표된 여러 연구들 중에는 기존 성과들을 더욱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차원의 논의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로는 혜종의 피난궁전 건설에 대한 성과를 언급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高麗史』의 기록을 중심으로 원 혜종이 탐라로 피난을 오려 했고, 그 궁전이 몽골인들이 중심으로 거주했던 법화사 일대에 조성되었음을 주로 언급했다. 하지만 혜종이 왜 탐라에 피난궁전을 지으려 했는지에 대한 정치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중국인 연구자인 李崐이 이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李崐은 혜종의 피난 궁전 조성이 중국측의 사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려의 자료를 참고하면 이는 분명히 사실일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1365년(至正 25)에서 1366년(至正 26)으로 넘어가는 시점의 원 정국을 상세하게 검토하며 혜종이 피난궁전을 조성하려 한 이유를 원의 국내 정치에서 찾았고, 혜종이 초원보다는 중원의 문화에 더 익숙했고 北邊 諸王과의 갈등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혜종이 탐라를 궁전 조성의 최적지로 선택했다고 분석했다.⁴⁰⁾ 元末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원-탐라의 관계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사건을 조명한 李崐의 연구를 통해 고려와 탐라의 관점뿐만 아니라 원의 역사적 추이를 세밀하게 바라보면서 원-탐라 관계를 살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李崐에 이어 윤은숙 역시 혜종의 피난궁전에 대한 논고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는 혜종이 흥건적의 위협보다는 궁정 내부의 권력다툼과 전염병으로 인해 탐라로 오고자 했다는 점을 역시 원의 국내 정세 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밝혔다. 또한 탐라에 원의 목마장이 설치되어 몽골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혜종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탐라에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⁴¹⁾

40) 李崐, 「元順帝企圖避亂濟州島發微」, 『北大史學』 16,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해종의 피난궁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고고학과 연계된 연구이다. 몽골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법화사를 중심으로 관련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한 바 있는데,⁴²⁾ 그 발굴 성과가 차차 축적되고 주변 유적들에 대한 발굴 역시 이루어지면서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일우는 강정동 ‘대궐터’ 유적에 주목하면서 18세기의 기록인 『海外聞見錄』에서부터 이미 이 대궐터가 해종의 피난궁전이 조성되었던 자리라는 주장이 있었음을 소개했고, 그 발굴조사 결과 14~15세기에 사용된 건물지와 기와편이 확인되었음을 언급하며 강정동 대궐터가 해종의 피난궁전 부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강정동 주변이 몽골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제주도 서남부 지역이라는 것도 예의 주시해야 하며 부근의 하원동 왕자묘 유적 역시 원과 탐라 관계의 역사를 고려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⁴³⁾ 더 나아가 김경주는 제주도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법화사, 해종의 피난궁전, 왕자묘 등이 분포되어 있고 이 유적들의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상세하게 언급하며 ‘고고학적 元式文化’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지적했다.⁴⁴⁾ 차후에도 관련 유적들의 발굴이 진행됨과 함께 기존 연구 및 문헌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원-탐라 관계사 분야의 진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위 연구들이 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된다.

이렇게 2000년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며 성과가 축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원-탐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확대를 도모하는 연구도 발표되면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배속히는 원대의 강남-탐라-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항로를 주목하면서 원이 남송을 정복한 이후 일본을 원정하는 과정에서 탐라를 포함한 남

41) 윤은숙, 「元末 토곤 테무르 카안의 耽羅宮殿」, 『耽羅文化』 53, 2016.

42) 법화사 遺址의 발굴과 그 유물에 대해서는 발굴 보고서들과 강창화, 「濟州 法華寺址의 考古學的 研究」, 『제주도사연구』 9, 2000을 참고할 수 있다.

43) 김일우, 「제주 江汀洞 ‘대궐터’ 유적의 역사적 성격-고려시대 몽골의 제주 지배기와 관련하여」, 『韓國史學報』 60, 2015.

44) 金慶柱, 「考古資料로 살펴 본 元和 耽羅」, 『耽羅文化』 52, 2016.

방 향로를 개척했고, 일본 원정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탐라를 거점으로 하는 향로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분석했다.⁴⁵⁾ 원이 탐라에 큰 가치를 두고 있었던 여러 이유 중의 하나를 새로운 관점에서 밝혔다는 것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해상 왕래가 13~14세기 동아시아에서 지나는 가치를 조명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개석은 몽골의 탐라총관부 설치를 몽골제국의 세계 지배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연구 성과들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각 연구 성과들 사이의 세부적인 차이점들을 지적했고, 여기에 더하여 탐라 토착 지배세력을 관직에 기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원의 탐라 지배 아래에서 탐라의 토착 호족들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삼별초의 저항 근거지였던 향파두리성의 명칭이 몽골어에서 기원했을 수도 있음을 주장하면서 탐라총관부의 위치가 향파두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도 했다.⁴⁶⁾ 이는 몽골제국사 연구자의 관점에서 원-탐라 관계의 새로운 측면들을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李康漢은 13~14세기 탐라에 대한 원과 고려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고려가 어떻게 탐라를 직접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⁴⁷⁾ 13세기에 원이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기 이전에 고려는 탐라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통제를 위한 과정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원에 의해서 이 노력이 좌절로 돌아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4세기에 접어들어 고려는 탐라에 대한 정책을 재개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이라는 새로운 변수의 개입으로 인해 13세기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대표적으로 충선왕은 원의 탐라 지배 방식을 적절히 도입하면서 탐라를 고려의 영향권에 넣고자 노력했고, 공민왕은 원이 탐라에 남긴 재원을 장악하기 위해 탐라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탐라를 복속시켰던 것이다. 즉, 이강한의 연구 결과를 통해 고려는

45) 배숙희, 「元代 慶元지역과 南方航路-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 『中國學報』 65, 2012.

46)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304-328쪽.

47) 李康漢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2017.

당시의 국내·국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택해 탐라를 통제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원의 유산을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었고 원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까지 동원했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동훈은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탐라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외교적 사안들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원이 초원으로 물러난 이후, 원의 영향력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탐라를 놓고 고려와 명의 줄다리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원의 유산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었다. 이에 탐라 문제는 초기 고려-명의 외교전 속에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각되었고 『高麗史』, 『明太祖實錄』, 『吏文』 등에 수록된 외교 문서에는 그 전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탐라에 대한 고려와 명의 입장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은 결국 원-탐라 관계를 어떻게 계승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⁸⁾ 정동훈의 연구는 14세기 후반의 고려-명 관계에서 차지하는 탐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것을 원-탐라 관계의 연장선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2000년대의 13~14세기 원·명-탐라 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성과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초기의 연구부터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원의 官府, 목마장, 혜종의 피난궁전, 명에 대한 貢馬 문제, 탐라로 유배를 온 몽골인 등 기존의 연구 주제들이 더욱 심도 있게 분석되었고 고려와 탐라의 상황은 물론이고 원과 명의 정세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검토가 시도된 것이다. 또한 탐라의 사회와 문화에 끼친 원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고찰되었고, 법화사 등 관련 유적지들의 발굴이 진행되면서 원의 지배로 인해 탄생한 '실물'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원의 탐라 지배가 남긴 여파에 주목하고, 이것이 고려-명 관계의 초기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했음도 규명되었다. 그만큼 원-탐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화와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8) 정동훈,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제주 문제」,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V. 맺음말

13~14세기 원과 탐라 관계에 대한 연구는 池內宏이 원 세조 쿠빌라이와 탐라의 관계를 검토한 것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초기에는 연구 주제를 개척하는 측면에서 개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한국학계를 중심으로 원-탐라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들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高麗史』, 『元史』, 『元高麗紀事』, 『吏文』, 『明太祖實錄』 등의 기록과 함께 제주도의 자료들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어 탐라 관련 사료집이 간행되었을 정도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이를 통해 원-탐라 관계의 핵심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의 官府와 다루가치, 원의 목마장, 貢馬를 둘러싼 외교 분쟁, 牧胡의 난이 지닌 역사적 의미가 밝혀질 수 있었다.

자료와 연구 주제 방향의 성과를 기반으로 2000년대부터는 원-탐라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원과 탐라의 정치·외교적 관계는 물론이고, 문화와 사회에 끼친 영향에도 주목한 연구가 출간되었고 고고학 성과를 토대로 실제 유적과 기록의 연계를 통한 분석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元代史 및 明代史 연구 성과의 축적과 더불어 원과 명의 정세 및 제도 등을 상세하게 고찰한 바탕에서 탐라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구가 시도되었고, 더 나아가 원·명-고려의 관계에서 탐라 문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위상이 부각되기도 했으며 고려가 결국 탐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원-탐라 관계로 인해 형성된 여러 가지 측면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 즉, 연구의 시각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검토의 범주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원-탐라 관계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관련 주제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연구를 위한 ‘학술교류’는 의외로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제주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와 그 외의 연구들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연구자들과 다른 지역

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학술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연구의 심화 및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탐라지』 등과 같은 제주도 고유 자료들의 중요성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다방면의 학술교류가 분명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원-탐라 관계의 흔적을 보여주는 주요 유적지들의 발굴이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학술교류 역시 진행되어야 관련 연구 성과가 제주도를 넘어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을 통해 13~14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탐라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재조명이 다각도에서 시도되었고, 이는 차후의 연구들을 위한 충실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의 확대를 토대로 원-탐라 관계에서 밝혀졌던 기존 주제들에 관한 이해의 심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를 시야에 넣는 시각과 탐라 사회의 변화를 상세하게 검토하는 또 다른 시각을 염두에 두면서 동아시아 역사의 전개와 탐라가 주고받은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앞으로의 성과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의미있는 학술교류가 충실히 이루어져서 차후 고려시대사 연구, 원의 세계 지배 연구, 제주도사 연구 등의 방면에서 독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 高昌錫 編著, 『耽羅國史料集』, 新亞文化社, 1995.
구범진 역주, 『이문 역주(상)』, 세창출판사, 2012.
『明太祖實錄』
여원관계사연구팀 편, 『譯註 元高麗紀事』, 선인, 2008.
李鳴 校點, 『貝瓊集』,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10.

2. 연구서 및 연구논문

- 강만익,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耽羅文化』 52, 2016.
강창화, 「濟州 法華寺址의 考古學的 研究」, 『제주도사연구』 9, 2000.
高昌錫 「麗·元和 耽羅와의 關係」, 『제주대학교 논문집』 17, 1984.
高昌錫 「元·明交替期の 濟州島-牧胡亂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4, 1985.
高昌錫 「元代の 濟州島 牧場」, 『濟州史學』 창간호, 1985.
高昌錫 「「元高麗紀事」 耽羅關係 記事의 檢討-13세기 耽羅와 元과의 關係」, 『慶北史學』 21, 1998.
高昌錫 『濟州歷史研究』, 세림, 2007.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 2007.
金慶柱 「考古資料로 살펴 본 元和 耽羅」, 『耽羅文化』 52, 2016.
金九鎭 「麗·元의 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元대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雙城總管府·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 1989.
金東栓 「濟州 法華寺의 創建과 그 變遷」, 『耽羅文化』 20, 1999.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2010.
金庠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一)」, 『震檀學報』 9, 1938.
金庠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二)」, 『震檀學報』 10, 1939.
金庠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完)」, 『震檀學報』 13, 1941.

- 金日宇,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2000.
- 金日宇, 「고려후기 濟州 法華寺의 重創과 그 位相」, 『韓國史研究』 119, 2002.
- 김일우, 「고려후기 濟州·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韓國史學報』 15, 2003.
- 金日宇, 「고려시대 耽羅 지역의 牛馬飼育」, 『사학연구』 78, 2005.
- 김일우, 「제주 江汀洞 ‘대궐터’ 유적의 역사적 성격-고려시대 몽골의 제주 지배기와 관련하여」, 『韓國史學報』 60, 2015.
- 金泰能, 「蒙古의 耽羅支配와 崔瑩將軍의 牧馬討伐」, 『濟州新報』 12, 1959.
- 金泰能, 「明의 興起와 濟州와의 關係」, 『濟州新聞』 7, 1964.
- 金泰能, 「耽羅와 元의 牧養時代」, 『제주도』 18, 1964.
- 金泰能, 「耽羅와 元의 牧養時代(完)」, 『제주도』 19, 1965.
- 金泰能, 「元順帝의 避難宮殿址와 伯伯太子의 墓」, 『제주도』 31, 1967.
-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 南都永, 「朝鮮時代 濟州島牧場-韓國牧畜業 研究의 一端」, 『韓國史研究』 4, 1969.
- 南都永, 『濟州島 牧場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 문경호, 「삼별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변론」, 『韓國史學報』 59, 2015.
- 閔賢九, 「高麗 恭愍王의 反元的 改革政治에 대한 一考察-背景과 發端」, 『震檀學報』 68, 1989.
- 裴淑姬, 「元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中國史研究』 76, 2012.
- 裴淑姬, 「元末·明初의 雲南과 故元 後裔의 濟州 移住」, 『東洋史學研究』 119, 2012.
- 배숙희, 「元代 慶元지역과 南方航路-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 『中國學報』 65, 2012.
-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 윤용혁, 『삼별초』, 혜안, 2014.
- 윤용혁, 「제주 삼별초와 몽골·동아시아 세계」, 『耽羅文化』 52, 2016.

- 윤은숙, 「元末 토곤 테무르 카안의 耽羅宮殿」, 『耽羅文化』 53, 2016.
- 李康漢 「공민왕 5년(1356) ‘反元改革’의 재검토」, 『大東文化研究』 65, 2009.
- 李康漢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2017.
-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 이명미, 「공민왕대 초반 군주권 재구축 시도와 奇氏一家: 1356년(공민왕 5)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3, 2011.
- 이병렬·이종수, 「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4, 2014.
- 이익주, 「1356년 공민왕 反元政治 再論」, 『歷史學報』 225, 2015.
- 이종수, 「대원제국의 탐라지배와 문화적 영향」, 『人文科學研究』 21, 2013.
- 이종수, 「몽골제국의 탐라총관부 구조, 기능분석」,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8-1, 2014.
- 이종수, 「13세기 탐라와 원제국의 음식문화 변동 분석」, 『아세아연구』 59-1, 2016.
- 林常薰 「明初 洪武帝의 말 强要와 麗明關係」, 『中國史研究』 99, 2015.
- 전영준, 「13~14세기 元 목축문화의 유입에 따른 제주사회 변화」, 『濟州島研究』 40, 2013.
- 전영준, 「고려후기 제주 移居 元이주민과 通婚」, 『다문화콘텐츠연구』 15, 2013.
- 정동훈,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제주 문제」,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 陳祝三, 「蒙元和 濟州馬」, 『耽羅文化』 8, 1989.
- 최운정, 「1356년 공민왕의 ‘反元改革’ 재론」, 『大丘史學』 130, 2018.
- 崔鐘奭 「1356(공민왕 5)~1369(공민왕 18) 고려-몽골(원) 관계의 성격- ‘원간섭기’와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歷史教育』 116, 2010.
- T. 테무르, 「명초(明初) 유배지로서 탐라-운남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48, 2017.
- 阿達, 「耽羅隸元考述」, 『中國邊疆史地研究』 1997-1.

李屹, 「元順帝企圖避亂濟州島發微」, 『北大史學』 16,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岡田英弘, 「元の順帝と濟州島」, 『アジア文化研究』 1, 1958.

岡田英弘, 『モンゴル帝國から大清帝國へ』, 東京: 藤原書店, 2010.

大葉昇一, 「元・明初の耽羅(濟州島)」, 『昭和女子大學文化史研究』 3, 1999.

池内宏, 「元の世祖と耽羅島」, 『東洋學報』 16-1, 1926.

Serruys, Henry.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Bruxelles: L'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1959.

Yang, Sang Ick. "The Foreign Influence on the Traditional Culture of Cheju Island", 『제주대학교 논문집』 5, 1973.

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relations between Yuan Empire and Tamla in the 13~14th Centuries

Kwon, Yong-cheol*

Research on the relations between Yuan Empire and Tamla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has been in existence for a long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 the beginning, general approaches were attempted in terms of pioneering the research topic. From the 1980s, detailed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Yuan Empire and Tamla was made in a Korean academic world. The research on the data of Jeju Island was also conducted, and the study was activated so that the Tamla material collection was published. Through this,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core themes of relations between Yuan Empire and Tamla could be reveal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20th century, various studies on the Yuan Empire and Tamla were published since the 2000s. Studies on the influence of culture and society, as well as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Yuan Empire and Tamla have been published. Based on archaeological achievements, analyzes based on linkages between actual remains and records have also begun to be made. Not only did the perspectives on the research become diverse, but also raised the necessity of making the whole of East Asia a category of review. In the future, I think that research and deepening of research will be possible if actively

*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exchanging academic information with researchers in Jeju Island and other local researchers.

Key-words: Tamla, Mongol, Yuan Empire, Yuan-Tamla relations

논문투고일: 2018. 12. 15.

심사완료일: 2019. 01. 31.

게재확정일: 2019. 02. 01.

K C I